

# ‘달빛 감성’ 황룡강생태길30, 밤 산책 명소로 변신

장록습지 2km 구간 달빛데크길 조성  
산자부 공모사업 국비 3억원 투입  
지난 29일 ‘달빛 야행’ 야간 걷기 행사

광주 광산구 황룡강생태길30에 야간 조명과 보행등을 갖춘 데크길이 조성돼 밤 산책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는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생태길30’에 저녁 시간 걷기 좋은 ‘달빛데크길’을 조성, 지난 29일 이를 기념한 야간 걷기 행사 ‘달빛 야행’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산구는 민선 8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생태길 30 조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야간경관 조성, 야간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억원을 활용해 장록습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 2km(중보



광주 광산구가 지난 29일 황룡강생태길30에서 달빛데크길 조성을 기념해 진행한 야간 걷기 행사인 ‘달빛 야행’에 참가한 주민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교·장록교-우방아파트 데크길)에 아름다운 야간 조명과 밤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보행등을 갖춘 달빛데크길을 조성했다.

달빛데크길 완공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달빛 야행’ 행사에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청년밴드 ‘앙코르’의 공연을 감상한 이후 함께 달빛데크길을 걸으며 가을밤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달빛데크길 조성으로 황룡강생태길30이 바쁜 일상을 마친 시민의 저녁을 함께하는 명품길, 밤에 더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생태·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광주 대표 명품길을 목표로 송산근린공원부터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12km, 약 30리에 황룡강생태길30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단절 구간 연결 및 보행환경 정비와 더불어 테마정원 조성, 문화예술행사 개최, 테마형 걷기 코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상철 기자

## 맨발길·청소년공간 조성 나서 남구 푸른길 공원

광주 남구는 푸른길 공원 내 맨발길과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맨발길과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는 장소는 푸른길 공원 내 주월동에서 진월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맨발 산책로는 푸른길 공원 내 2곳에 조성되며, 청소년 쉼터 공간은 진월동 푸른길 공원 산책로 끝 지점의 동성고 부근 소규모 광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맨발길과 청소년 여가활동 장소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푸른길 테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 정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남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푸른길 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다”면서 “아름다운 공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도 일제히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수상 서구, 광주 자치구 중 유일

광주 서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동체 치안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서구는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범죄 예방활동을 주제로 마약 등 이슈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공로를 세운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구는 지난 1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광주전남지부,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7개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예방, 상담 및 재활, 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연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마약류 익명검사’는 서구에서 직접 주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한 검사 기피를 막고 중독상담과 범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한 서구는 △동물병원(마약류관리사각 대상) 전수 점검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마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약 복용 이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에 있다”며 “이제는 마약문제 사전 차단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때이므로 서구의 선도적 노력이 광주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 걷고 기부하는 ‘오잇길 걷기대회’ 서구, 11월 2일 영산강 일대서

광주 서구가 오는 11월 2일 영산강 일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5.2km의 기적을 만드는 ‘제3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비 ‘오(5)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2)웃’의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은 오잇길 걷기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5.2km의 기적’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세하동 인근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5.2km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받고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일원)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제1회 오잇길 걷기대회는 총 1007명이 참여해 참가비 등 603만5000원의 후원금을 모았으며, 지난 4월 제2회 걷기대회는 총 1592명이 참여해 862만1000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서구는 오잇길 후원금으로 가족돌봄청년의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아픈 가족을 위한 병원비 지원 등으로 사용했으며, 이번 걷기대회 후원금도 가족돌봄청년의 자아실현과 진로 및 인생의 꿈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날 김기강 서구청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착한걸음 52km 걷기에 도전한다. 벽진서원에서 출발해 금당산 맨발로, 풍암호수공원, 운전저수지, 상무시민공원, 5·18기념공원, 양동시장, 영산강 자전거길, 전평제를 거쳐 다시 벽진서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또 이날 착한걸음에는 서구 주민들이 함께 한다. 서구 관내 52km구간을 5.2km씩 10개 테마로 구분했고 각 구간마다 맨발걷기동호회, 걷기동아리, 가족돌봄청년, 대학생, 주민자치협의회, 두바퀴사랑회, 18개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걷는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착한도시 서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 동구가 지난 26일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에서 ‘제4회 동명커피산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 동구 동명커피산책, 광주 대표 특화 상권 도약 견인

### 크리에이터·시민... 참여형 축제

광주 동구가 지난 26일 동명동 카페거리와 여행자의 집 일원에서 열린 제4회 동명커피산책이 성황리에 막을 내리면서 동명동 일원을 광주 대표 특화 상권으로 도약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NEW COFFEE’, ‘NEW CULTURE(새로운 커피, 새로운 문화)’를 주제로 도심 속 커피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킨 이번 축제는 프로그램 참여 사전 신청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동명동 일원의 대표 카페들을 투어하며 커피를 즐기는 투어 프로그램 사전 신청 사이트가 오픈 4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현장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가 빗발쳤다.

### 북구, 난방 취약계층 겨울나기 선제 지원

### 사랑의열매 협력...난방비 등 지원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광주사랑의열매와 함께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저소득 세대를 대

동구는 이번 축제의 성공 요인을 △‘커피’를 들고 산책이 가능한 동명동 일원의 골목 문화 △다채로운 카페들과 창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커피’와 ‘인문’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프로그램들 등으로 꼽았다.

동명커피산책에서 방문객의 발길을 잡은 대표 프로그램은 △핸드드립 커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저스트 어워드’ △동명동을 산책하며 다양한 카페를 즐길 수 있는 카페 투어 ‘노런 저스트 워크(No Run, Just Walk)’ △커피와 디지털을 코스로 즐기는 ‘동명 커피다이닝’ △커피와 인문학을 접목시킨 ‘동명신춘문예’와 ‘로고송 페스티벌’ 및 ‘꽃한송이 초대장’ 등이었다.

특히 에스프레소 전용잔에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어준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긴 후

취향에 맞는 커피에 투표를 하는 ‘저스트 어워드(Just Award)’에서 뽑은 올해의 커피 무등상에는 카페 △서정적 △가베 하우스 △정들다 브루어스가 선정돼 동명공동체상생협회의 상금과 상품을 받기도 했다.

무신사자회사에스엘디티(SLDT)와 콜라보한 ‘동명커피산책’ 홍보 한정판 굿즈(상품)도 인기가 많았으며, 디저트 앨리에서 준비된 디저트도 모두 완판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명커피산책은 인문 동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으면서도 로컬 상권을 성장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면서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키워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상으로 난방비와 겨울나기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겨울철 기획 난방비 지원사업’이 이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광주사랑의열매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중위소득 100% 이내) 1100여세대에 난방비와 방한용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1600만원이 투입된다.

난방비는 500가구 대상 가구당 10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600여가구에는 겨울이불과 전기장판, 패딩 조끼 등 방한용품이 제공될 계획이다.

북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얻어 난방비와 방한용품을 내달 초까지 지급해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